

루이 라벨의 『가치론』에서 ‘미학적 실재’와 ‘가상의 문제’에 관한 고찰

이명곤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실재에 관한 논의의 역사와 새로운 문제제기

1. 루이 라벨의 사상에서 인간적 행위와 실재의 다양한 모습들

1.1. 다양한 실재들과 다양한 가치들

1.2. 가치의 실현과 인간실존의 자유

2. 미학적 실재와 예술행위에서 상상력과 가상의 문제

2.1. 미학적 가치의 특성과 미학적 실재

2.2. 창조적 행위에서 상상력, 가상, 허상 그리고 미학적 실재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실재에 관한 논의의 역사와 새로운 문제제기

실재(*res*, *réel*, *reality*)에 관한 논의는 철학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주제였다. 불어판 『철학사전』을 참조하면¹⁾ ‘실재’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1) 여기 제시하는 실재와 관련된 용어의 규정들은 다음의 불어판 철학사전에서 참조한 것이다. Jacqueline Russ, *Dictionnaire de Philosophie* (Paris: Bordas, 1991), 241-243.

적 대상을 지칭하는 ‘실제적인 것(le réel)’이라는 용어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것의 특성’을 지칭하는 ‘실재(réalité)’ 혹은 ‘실재성’이다. 전자는 라틴어의 ‘res’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상(illusoire)’ 혹은 ‘외관(apparent)’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것(ce qui est donné)’을 지칭하며, 이 경우 다만 ‘상상된(imaginaire) 것’에 대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재(réel)가 ‘가능한 것(le possible)’에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현실적인 것(le actuel)’과 호환되며, ‘추상적인 것(le abstrait)’과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구체적인 것(le concret)’과 호환된다. 반면 ‘실제적인 것의 특성’을 지칭하는 ‘실재성’은 라틴어의 ‘realitas’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이는 ‘실제적인 그것(ce qui est réel)’을 말하는 것으로 ‘추상성’ ‘이상성(idéalité)’ ‘환상(illusion)’ ‘꿈(rêve)’ 등과 대립하는 용어로서 ‘구체성’ ‘현실성(actualité)’ ‘실재’ ‘현실’ 등을 의미한다.

철학사의 초기에는 진리에 대한 추구가 마치 ‘실재’에 대한 추구처럼 간주되었는데, 플라톤은 철학자의 사명을 ‘허상’으로부터 ‘실재’를 구해내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마치 ‘진정한 세계’의 모사에 지나지 않다고 보았으며, ‘보다 지성적일수록 보다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영원하고 참된 ‘이데아의 세계’를 가정하였고, 하나의 대상이나 사유가 보다 참된 것(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은 ‘보다 이데아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재란 항상 형상과 질료의 합성으로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실재로서의 이데아의 실존’을 부정하였다. 반면 그는 실재란 항상 ‘현실태(actus)’와 ‘가능태(potentia)’의 합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재는 항상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중세로 오면 실재의 문제는 ‘보편논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보편자(인간본성, 동물성 등)’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실재론) 다시 말해 보편자를 실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개인들)뿐이며 보편자는 다만 이름뿐인가(유명론) 하는 것이었다. 이 논쟁을 완결지운 아벨라르두스는 보편자란 개별자의 내부에서 ‘관념적 존재’라는 형식으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개체에 있어서 실재의 질서에서는 개별자가 앞서지만, 사유의 질서에서는 보편자가 앞서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근대로 오면 실재의 문제는 인식론의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물자체(Ding an sich, 실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한 칸트는 실재(물자체)가 인간의 인식에 포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경우 실재란 한 개체가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국면을 의미하

는 것으로 칸트는 이 실재가 인간의 인식에 포착되는 것은 다만 인간의 인식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포착되며(합목적성) 실재 그 자체는 초월적인 것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관점을 보다 극단적으로 밀고 간 사상가는 버클리였는데, 그는 우리가 “실재(réalité)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 것”²⁾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거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불교의 관점과 유사하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의 모습은 사실상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실재’로부터 순전히 인간의 정신(마음)이 구성해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을 ‘절대적 관념론’이라고 부르는데 절대적 관념론의 관점에서는 실재 그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이 인식하는 일체가 인간이 구성해낸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반면 이러한 관념론의 관점과는 정 반대되는 관점도 있는데, 로크는 『인간오성론』에서 인간이 인식하는 것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감각적인 요소’ 혹은 ‘물질적인 요소’ 뿐이라고 주장하였다.³⁾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실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만 ‘감각적 인식에 포착되는 일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현대로 오면서 실재에 대한 문제는 주로 ‘과학철학자’들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는데, 영미 중심으로 활동한 ‘심철학(philosophy of mind)’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실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들은 사실상 감각기관이 수용한 외부의 정보들이 뇌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되고 이것이 망막에 투사된 것을 보는 것으로 고려하였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일종의 뇌가 재구성한 ‘가상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관점은 어떤 의미에서 버클리의 ‘절대적 관념론’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재 해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불어권 과학철학자들은 ‘신경’ 혹은 ‘뇌’의 작용에 의존하는 심철학자들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스통 바슐라르는 ‘실재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교감(sympathie)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실재를 고찰하는 방식을 ‘분석’에 의존하는 과학적 방식에 반기를

2) George Berkeley, *Les Principes de la connaissance humaine*, Trad. C. Renouvier, (Paris: Armand Collin, 1920), 79.

3) “로크에게 있어서 모든 육체들의 구성요소는 동일한 종류이다. 즉 하나의 단단하고 연장성(étendue)을 가진 실체이다. (...) 모든 육체들은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분자들(atom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육체들의 유일한 특징들은 크기, 모양, 위치, 움직임, 정지, 숫자 운동, 휴식 혹은 분자들의 집합체로 나타난다.” Edwin McCann, *Locke's philosophy of body*, (The Cambridge Companion to Locke, 1997), 56.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바슐라르는 실재란 감각에 의해 포착된 것도 정신에 의해 분석되고 재구성된 것도 아닌, 그 이전에 인간의 실존에 의해 ‘체험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베르그송 역시 ‘실재’란 분석에 의해 파악된 것이 아닌 직관(intuition)을 통해 통찰된 것으로 한 개체가 가진 가장 심오하고 가장 탁월한 국면처럼 고려하였다. 그는 실재와의 교감은 인간의 영혼에게 어떤 떨림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술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실재와의 교감이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⁵⁾

이상의 실재에 관해 논의된 철학사적인 변화는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가상현실’ ‘가상세계’ 등이 보다 현실의 삶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상과 실재’라는 주제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주제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상’과 ‘실재’가 사실상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가상’이 또 다른 ‘실재’가 되고 ‘가상현실’이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의 상실이라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철학적 담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철학이 철학사의 초기부터 끊임없이 추구해 온 것이 ‘허상’ 혹은 ‘거짓’으로부터 ‘실재’ 혹은 ‘참된 것’을 구분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철학이 이렇게 ‘실재’ 혹은 ‘참된 것’을 추구한 이유는 존재론적으로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 논문의 주제를 ‘루이 라벨’의 사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벨은 그의 사상 전반에 걸쳐 ‘허상’ 혹은 ‘허구’의 삶에서 벗어나 ‘실재’ 혹은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제적인 삶으로부터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가치론』에서 ‘실재(le réel)를 가치(valeur)를 발견하고 증진하는 유일한 수단’처럼 고려하고 있으며⁶⁾,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실재에 기초한 삶만이 가치 있는

4) 이러한 바슐라르의 관점은 다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Gaston Bachelard, *Essai sur la connaissance approchée*, (Paris: J. Vrin, 1969), 127-128.

5)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H. Bergson, *Le pensee et le Mouvant*, (Québec: L'édition électronique, 2003), 166-167.

6) “이제 우리는 실재(le réel)가 어떻게 ‘가치의 부정’이 아니라 ‘장애물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증진하는 유일한 수단(l'unique moyen de la trouver et de la promouvoir)’이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Louis Lavelle, *Traité des valeurs*, I, (Paris: PUF, 1991), 278. (이하 ‘TDV I’의 약어로 표기함).

삶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루이 라벨의 사상에서 인간적 행위와 실재의 다양한 모습들

아래 라벨의 두 진술은 실재에 관한 그의 근본적인 관점과 실재와 인간적 행위의 관계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활동이 더 많이 발휘됨에 따라 ‘주어진 것(le donné)’이 소진되기는커녕 오히려 풍부해지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체험의 모든 국면들은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개선된다.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작은 몸짓도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실재의 형태(forme du réel)’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같다. 사람들은 지성적, 미학적, 정치적, 종교적 영역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수렴할 수 있는 지평들로부터 ‘하나의 무한한 복수(une pluralité infinie)’가 우주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들 중 각자는 그것을 산출하는 활동 그 자체가 더 커짐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더욱 섬세하며 더 큰 내적 통일성을 획득한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활동이 약해지면 이러한 모든 차이들이 지워지고, 모든 윤곽들이 폐지되며, 세계는 ‘모호한 상태(état de nébuleuse)’로 되돌아가게 된다.⁷⁾

얕과 얕의 대상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존재하고 이 간격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얕은 재현(représentation)과 실재(le réel) 사이에서 어떤 ‘가변적인 일치(correspondance variable)’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실재를 알기 위해서는 실재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실재를 놓칠 수도 있다.⁸⁾

위 첫 번째 진술에서 라벨은 우선 ‘실재’를 ‘주어진 것’⁹⁾으로 간주하면서 이 실재가 인간에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 활동의 정도와 차이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보다 분명하거나 보다 모호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실재’를 인간의 인식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그의 관점은 그의 ‘실재론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재가 인간의 인식에 포착되는 (나타나는) 국면은 인간의 감각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재는 통일된 하나로 존재하지만 인간

7) Louis Lavelle, *De l'Acte*, (Paris: Montaigne, 1946), 306.

8) Louis Lavelle, *Traité des valeurs*, II, (Paris: PUF, 1991), 26. (이하 ‘TDV’ II’의 약어로 표기).

9) “우선 우리가 실재(réalité)라는 단어를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의미로서 ‘주어진 것(le donné)’과 동일시한다면...” TDV I, 273.

에게는 실재가 다양성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실재가 ‘감각적 실재’로, 어떤 사람에게는 ‘감성적(미학적) 실재’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 실재’나 ‘종교적 실재’로 혹은 이들 중 둘 혹은 셋이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실재의 모습이 보다 인간 활동의 강도가 클수록 보다 ‘내적 통일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보다 강하고 활발할수록 실재의 근본적이고 참된 모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실재는 하나의 통일된 것이나, 인간의 인식활동에 따라 다양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다양성은 인간의 활동의 정도에 따라 하나의 통일체로 수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진술에서 그는 보다 분명하게 실재와 인간의 인식에 관해 규정해 주고 있는데, ‘앎과 앎의 대상 사이에 항상 간격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인간의 인식은 결코 완전하게 실재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칸트처럼 ‘실재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앎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것’은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간격이 있다는 것은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지만,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재를 안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실재와 우리의 존재가 일치를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치’가 ‘가변적인 일치(correspondance variable)’라는 것은 인식된 실재의 내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1. 다양한 실재들과 다양한 가치들

라벨이 실재의 개념을 특히 중시하는 이유는 실재가 가치를 유발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치의 얼굴(aspect de la valeur)’이 아닌 ‘존재의 얼굴(aspect de l'être)’은 단 하나도 없다”¹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자면 실재란 인간정신(실존)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의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며, 이 가능성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든지 그것은 좋은 것이며 소중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라벨에게 있어서 존재(être)란 인간의 인식에 ‘실재로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다양한 실재들의 국면들이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로 이루어진 상태처럼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는 인식에 포착될 수가

10) *TDV* I, 285.

없고, 다만 다양한 실재라는 형식으로만 파악될 뿐이다.¹¹⁾ 그런데 존재가 ‘실재’의 모습으로 인간의 감각이나 정신에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나 정신이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내용이나 강도에 따라서 실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한에서 존재는 인간에게 실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간이 무엇인가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 혹은 ‘선한 것’이기에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실재들은 ‘좋은 것이요 또 선한 것’ 다시 말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라벨이 말하고 있는 ‘존재의 얼굴’이란 인간의 인식에는 포착될 수 없는 존재의 통일성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 ‘실재’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재란 곧 ‘가치가 있는 무엇’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의 사유는 “한 존재는 존재하는 만큼 선하다”라고 하는 스콜라철학의 관점에 대한 현대적 변주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편존재(*esse universalis*)’란 모든 존재하는 것(존재자, *ens*)에게 존재하도록 하는 힘(*potentia*) 혹은 행위(*actus*)를 부여하는 것이라 보았고, 이 보편존재가 개별자의 본질(*essentia*, 혹은 형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체의 존재(*esse*)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 보았다. 이 경우 존재(*esse*)란 보편적인 것이든 개별적인 것이든, 분리되거나 나눌 수 없는 통일체로서 존재하며, 존재 그 자체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초월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식(앎)이란 근본적으로 본질의 질서, 즉 ‘무엇인 것(What)’의 지평에서 파악된 것이며, 존재란 이 본질을 실제로 있게 하는 본질에 앞선(초월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만큼’이 의미하는 것은 초월적이고 무제약적인 존재(*esse*)가 구체적인 본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보편존재가 구체적인 본질을 통해서 ‘실제로 무엇이 된다’는 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순수한 가능성이 ‘보다 좋은 것’으로 된다는 말이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어린 베토벤이 지닌 ‘악성(樂聖)’의 가능성은 ‘그것이 실현되는 그만큼 선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세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선한 것(*bonum*)’이 라벨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것(*le valable*)’으로 된 것이다.

11) “존재의 통일성(*unité de l'être*)이 왜 개별적인 형태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통해 표현되는 것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이다. 만일 존재가 그 자신이 통일성 안에 남아 있다면, 이러한 통일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의 통일성(*unité de rien*)’이 될 것이며, 이는 내용이 없는 ‘순수하게 추상적인 통일성(*unité purement abstraite*)’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듯이 예견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실제적인) 통일성(*unité réelle*)’이란 다양성의 통일성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TDV* II, 20.

이제 실재와 가치의 관계를 보다 가까이 살펴보면, 라벨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으로서의 실재는 애초에는 마치 가치의 중립처럼 나타나며,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가치의 의미 가 부여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라벨의 아래의 진술은 가치의 개념이 어떻게 발생하며, 무엇이 가치를 규정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마치 가치에 대한 부정처럼 나타나는 것은 ‘주어진 것’의 특정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불의가 모든 사건의 필연적인 특성이 아니며, 오류가 모든 긍정의 필연적인 특성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불의처럼 고려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한 긍정들을 오류(거짓)처럼 간주할 수가 있다. 이는 ‘오직 정신만이(l'esprit seul)’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여기서 결정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정신이 주어진 실재에 대해서 자신의 고유한 독립성(indépendance)과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성(activité valorisante)’인 자신의 고유한 본질의 독창성(originalité)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실재에 대한] 정신의 이 비난(condamnation, 책망)을 통해서 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과의 어떤 관계도 없이 ‘그 자체로 취해진 실재’란 적대적이지 않으며 다만 가치에 대해서는 낯설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¹²⁾

위 라벨의 진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즉 주어진 세계를 마치 ‘참된 세계(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추락하거나 타락한 것으로 고려하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염두에 둔 ‘이원론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벨은 ‘주어진 것(현실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은 이를 부정하거나 오류처럼 고려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주어진 세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세계에 대한 정신의 부정이나 책망 그 자체가 정신이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간주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난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 속에 제도나 정치가에 대한 올바른 관념(참된 관념)이 있고, 비난받는 대상이 이 관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즉 타락하였거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이 참된 것일 때는 무엇이건 좋은 것 즉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 어떤 것이 오류를 범하거나 타락하게 될 때는 ‘좋지 않은 것’ 즉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의 판단이 전혀 동반되지 않은 ‘주어진 것’ 즉 ‘실재’란 가치의 측면에서는 마치 ‘중

12) *TDV* I, 274.

립적인 것'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라벨에게 있어서 '실재'라는 것은 양의성을 가진 용어이다. 실재는 그 자체 좋은 것(가치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만 인간정신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진다는 조건 하에서, 다시 말해 정신에 의해 판단의 행위가 주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인간의 정신과 전혀 아무 관계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재란 가치로서는 중립적인 것처럼 고려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렵지 않게 다른 하나의 추론을 해 볼 수 있는데, 실재와 관계성을 가지는 정신이 어떤 정신인가 혹은 어떤 상태에 존재하는 정신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실재가 다양하게 다른 가치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행 중에 만난 희귀하고 아름다운 난초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생태학자라면 그는 그 난초에게서 어떤 '생태적 가치(생태적 실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가 예술가나 미학자라면 '아름다움의 가치(미적 실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혹은 그가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가진 수도자나 수행자라면 '신의 놀라운 섭리(종교적 실재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정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산행 중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이 아름답고 놀라운 무엇이 아니라, 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흉물스런 덫을 발견하였거나 혹은 건물을 짓기 위해 무자비하게 잘려져 나간 나무들을 발견하였을 때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주어진 것, 실재)에 대한 강한 부정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아름다운 난초나 잘려나간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는 어떤 가치에 대한 감정이나 현실에 대한 부정의 감정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주어진 실재는 하나이겠지만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사람의 정신(실존)의 상태에 따라서 실재는 다양한 국면으로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실재와 가치의 다양한 국면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실재의 국면	물리적 실재	감각적 실재	미학적 실재	도덕적 실재	정신적 실재	종교적 실재
가치의 국면	물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	감성적 가치	미학적 가치	도덕적 가치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
구체적인 예	금 1g	아름다운 장미	인상주의 그림 한 점	정의감	유기체적 세계관	소명 의식

[루이 라벨의 이론에 따른 가능한 다양한 실재와 가치들]

1.2. 가치의 실현과 인간실존의 자유

라벨은 ‘주어진 것(실재)’이 정신에 의해서 가치를 가지게 될 때, 이를 ‘현실성(réalité, 실재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혹은 힘을 ‘실존(existence)’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실성(réalité, 실재, 참된 것)은 말하자면 항상 존재하고 주어져 있는 존재의 완성(l'achèvement d'un être)인 반면, 실존(existence)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를 자신에게 부여해 주어야(se donner à lui-même)’만 하는 ‘존재의 시작(le commencement d'un être)’이다.¹³⁾

우리는 무엇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직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현된 이것에 ‘무엇(What, *essentia*)’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개별자(존재자)란 존재가 인간실존을 통해 무엇이라고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본질로 구현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논리적인 순서를 보자면 ‘존재 ⇒ 실존 ⇒ 본질’의 순서를 가지게 되며, 실존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현실성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존은 존재로부터 ‘가치’를 산출하는 동인(動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라벨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는 ‘세계’ 혹은 ‘현실’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자체 가치 있는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에게 있어서 인간의 정신이란 실존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주어진 현실(실재)을 긍정하고자 하고 — 왜냐하면 이 현실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것으로¹⁴⁾ — 왜냐하면 실존이란 존재의 시작으로 서 중단 없이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 이해된다.¹⁵⁾ 우리는 여기

13) *TDV* I, 282.

14) 인간의 정신이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것이라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논문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곤, 「루이 라벨의 참여이론과 사유의 역동주의」, 『인간연구』 26,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4).

15) 라벨에게 있어서 인간의 정신이란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되고자 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정신은 또한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의 상태’ 혹은 ‘휴식의 상태’를 가지기도 한다. 여기서 정신에게 정화해야 될 요소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정신이 오히려 가치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는 인간의 정신이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치의 파괴를 의미하는 ‘악’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서 라벨 특유의 낙관주의적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 혹은 ‘사회’라고 이름 부르는 것은 그 자체 가치 있는 것이며,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 그의 실존은 끊임없이 가치 있는 무엇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¹⁶⁾

하지만 이러한 라벨의 낙관론이 그가 세계나 사회가 지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무지하다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벨은 존재란 선과 악을 모두 동반할 수 있으며, 인간의 실존은 가치를 산출할 수도 있고 가치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는 악(le mal)과 선(le bien)을 모두 동반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활동성(activité)에 대해서 그의 모든 작품들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인간의] 활동성은 가치를 농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와 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⁷⁾

가끔은 현실성이 가치와 모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결국 현실성이 ‘가치의 표현(l'expression de la valeur)’이 될 수 있음을 [인간 실존을 통해]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실존은 언제나 ‘가치의 동인(agent de la valeur)’이며 종종 가치를 배신하기도 한다.¹⁸⁾

일반적으로 중세철학자들은 존재를 그 자체 선과 동일시하였다.¹⁹⁾ 반면 위 진술에 의하면 라벨은 ‘존재란 선과 악 모두를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은 사실상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국면들에 대한 다른 분석과 이 국면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의 사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사상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세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존재(esse)란 무엇을 없지 않고

것을 의미한다. “순수한 정신(l'esprit pur)은 부동적이고 사용되지 않은 자신의 완벽함을 향유하기 위해 모든 창조 작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정신은 창조적인 정신(l'esprit créateur)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순수한 정신이 창조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오직 ‘가치의 이름으로(au nom de la valeur)’이 창조의 정신을 영속적으로 ‘도가니(creuset, 정화의 장소)’에 두기 때문이다.” *TDV* I, 276.

- 16) 반면 라벨은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염세주의’ 혹은 ‘비관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치의 창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며, 나아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가치를 갈망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실존은 결코 이를 실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라벨은 전자를 ‘염세주의(pessimisme)’라고 부르고, 후자를 ‘악화된 염세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TDV* I, 282.

- 17) *TDV* I, 287.

- 18) *TDV* I, 282-283.

- 19) “존재의 바깥에 선이 있을 수가 없다.” Thomae Aquinatis, *Summa Theologica* I, q. 5, a. 1, c.

있게 하는 ‘존재 현실력’ 즉 ‘힘 또는 능력(*potential*)’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태 자체 즉, 행위(*actus*)’를 의미하는 ‘존재 행위’를 지칭하기도 한다. 전자를 ‘근본적인 힘 또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면, 후자는 ‘변화와 실현 중에 있는 역동적인 사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란 이미 실현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본질(*essentia*)’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아직 본질을 가지지 않았지만 본질을 가지게 하는 가능성 그 자체로서의 힘에는 ‘약’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존재는 곧 선인 것이다.

반면 라벨에게 있어서 ‘존재’의 일차적인 의미는 무엇을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 또는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으로부터 ‘인간 실존’을 통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 즉, ‘구체적인 것(*le concret*)’을 지칭하기 때문에 ‘선과 약’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행위가 곧 ‘선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라벨이 “인간의 활동성이 가치와 싸울 수도 있다”라고 한 말과 “실존이 종종 가치를 배신하기도 한다”라고 한 말은 사실 동일한 사태의 다른 표현이다. 즉 인간의 실존은 존재로부터 선도 악도 모두 산출할 수 있으며, 그래서 실존이란 근본적으로 ‘갈등하는 실존’인 것이다. 역으로 인간이 가치를 산출하거나 가치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선도 악도 모두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존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라벨은 ‘자유’의 의미를 가장 먼저 ‘인간의 실존’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 자유는 또한 ‘가치를 실현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라벨이 도덕적인 것 보다는 존재에 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를 형이상학자로 부르지는 않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세계로서의 존재’에 대한 찬미 보다는, 이 주어진 존재로부터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만일 인간의 실존이 ‘가치의 실현(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회의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실존이 ‘가치의 획득(*conquête de la valeur*)’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삶의 맛(*goût de la vie*)’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우리는 오직 주어진 그대로의 세계의 모습과 우리를 위협하기를 멈추지 않는 세상의 악만을 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세상이 ‘전혀 듣지 못하는(*demeure sourd*)’ 가치에 대한 요청

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볼테르(Voltaire)의 잔인한 말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난파선이다. 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를) 구하라는 것이 각 개인의 모토이다.”²⁰⁾

회의주의자 혹은 염세주의자란 ‘세상이란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이란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려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의 고찰이 그 자체로 오류라고는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란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부조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벨은 이러한 사태를 하나의 변증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즉,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주어진 세상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보다 더 나은, 일종의 ‘이상성(idéalité)’을 알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악’이 있기에 ‘선’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현실에 대한 거부’란 곧 ‘이 현실에 가치를 구현하라는 내면의 요청’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다.²¹⁾ 그래서 라벨에게 ‘실존적인 사람’이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치의 실현’을 감행하는 사람이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 다양한 가치들, 예컨대 물질적, 심미적, 도덕적, 정신적, 영적 가치들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면서 ‘무한히 상승하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²⁾

2. 미학적 실재와 예술행위에서 상상력과 가상의 문제

이제 미학적 가치와 미학적 실재에 대해 관심을 돌려보자. 발생학적 질서에서 보자면

20) *TDV* I, 288.

21) “실재(현실)에 대한 거부(*le refus du réel*)는 그 자체 가치가 아니라 실재가 [이상성을 혹은 가치를] 결여(*manque*)하고 있고 이를 필요로 함을 증언하는 단절된 잠정적인 행위일 뿐이다. 이러한 거부는 우리로 하여금 ‘실재와 가치 사이에 일치(*coïncidence entre le réel et la valeur*)가 없음을 인식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획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TDV* I, 276.

22) “정신을 자기 자신에게 드러내고, 정신으로 하여금 모든 가치들의 등급들(*toute l'échelle des valeurs*)을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무한한 상승을 요청하게 된다.” *TDV* I, p. 278.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가치상승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최고선’이며, 실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죄는 이러한 가치상승을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최고선 아닌 것을 최고선처럼 간주하고 특정한 가치에 안주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물질적(경제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이 ‘정감적(정서적) 가치’ 그리고 그 다음이 ‘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치를 인간의 실존을 통해 ‘실현해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고려하자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실존을 통한 가치의 실현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가치란 객관성의 지평에 있으면서 양적인 것으로 환원되기에 창조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정감적(감성적) 가치 역시 거의 수동적이며 개인의 순수한 주관성의 지평에 있는 것이기에 창조적(가치창조)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미적 가치 혹은 미학적 가치는 특히 예술가들의 예술행위에서 잘 드러나는 것으로 창조적이라는 ‘가치실현’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 미학적 가치의 특성과 미학적 실재

라벨은 인간이 오감으로 감각대상을 인지하거나 느끼는 것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감정적 가치’ 혹은 ‘정감적 가치(*la valeur affective*)’로 고려하고, 이러한 정감적 가치를 넘어서서 대상이 가지는 본성이나 본질 혹은 대상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어떤 의미나 암시 등 감각성의 지평을 넘어서는 것을 ‘미적 가치’ 혹은 ‘미학적 가치(*la valeur esthétique*)’라고 고려하고 있다.²³⁾ 그래서 그는 미학적 가치를 ‘정감적 가치와 지성적 가치의 종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학적 가치가 정감적 가치와 지성적 가치의 종합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것을 감지하고 감탄할 때 잘 드러난다. 봄날 한 무리의 벚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와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한다. 이 경우 비록 꽃의 모든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은 오감이 하는 일이겠지만, 그 꽃들을 ‘아름다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라벨은 “미적 감정과 같은 지성적인 앎(*connaissance intellectuelle comme l'émotion esthétique*)”²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또한 “개인적인 주관성의 깊어짐에 따라 보편성(*l'universel*)을 만나게 되는 미학적

23) “근본적으로 정감적 가치(*la valeur affective*)는 즐거움으로 환원되고 우리들의 이기주의에만 관심이 있는 반면, 미학적 가치(*la valeur esthétique*)는 정감 그 자체를 넘어서며 대상의 본성에 속하는 특정한 효과와 징표가 되는 하나의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 대상은 여기서 하나의 재현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미학적 가치는 정감적 가치와 지성적 가치의 종합이다.” *TDV* II, 296.

24) *TDV* II, 296.

가치들’²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라벨에게 있어서 미학적 가치는 주관적 특성과 보편적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마치 ‘지성에 참여하는 감각성’ 혹은 ‘감각성과 지성의 공동작업’의 결과처럼 고려하고 있다.²⁶⁾

그런데 라벨은 ‘지성적 앎으로서의 미학적 실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학적 감정과 같은 지성적인 앎은 ‘실재를 현존하게 한다(mise en présence du réel)’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식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것(donné)에 따르거나 최소한 이를 수용하는 것을 통해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따른다는 것, 수용한다는 것, 이것은 이미 행동(agir)하는 것이다.²⁷⁾

위 진술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미학적 감정 혹은 미학적 가치란 구체적인 어떤 실재를 ‘현존하게 한다(mise en présence)’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실재를 현존하게 하는 의식은 먼저 ‘주어진 것에 따르거나 수용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작품을 산출(창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실재와 교감(sympathie)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후자는 전자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예술가들의 일반적인 예술행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 예술가는 자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즉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운 ‘들녘의 풍경’을 보고 감탄을 한다. 어떤 것에 대해 감동 혹은 감탄을 한다는 것은 곧 이 어떤 것과 내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를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곧 ‘체험’이며, 이것이 곧 ‘대상’과의 ‘교감’이다. 이러한 실재(대상)와의 교감은 예술가의 내면에 그 대상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나 정서’를 유발하게 하고, 이는 어떤 지성적인 판단이 동반된 ‘소중한 가치’로 그의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된다. 체험과 교감이 주관성의 지평에 있는 것이라면, 그의 내면에서 어떤 ‘인상’이나 ‘관념’으로 자리 잡은 이것은 이미 보편성의 지평에 있다. 이것이 곧 ‘미학적 실재(réalité esthétique)’

25) *TDV* II, 298.

26) 라벨은 『가치론 II』에서 미학적 가치의 특성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객관성)의 특성을 가진 수학적 가치에 비해 **질적인 측면(주관성)의 특성**을, 추상적인 것을 지향하는 과학에 비해 **구체적인 것(le concret)을 지향하는 특성**을, 그리고 학문이 유용성을 지향하는데 비해 미학적 가치는 **‘순수한 기쁨’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며, 또한 미학적 가치는 사물들에게 **‘친밀성(affinité)을 부여하는 특성**과 이원화된 **감각과 지성을 통합하는 특성** 등도 가진다. 지면상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27) *TDV* II, 302.

이다. 이 미학적 실재는 ‘작품’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실현(창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주관성의 지평에 머물다 언젠가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예술가는 이를 구체적인 작품으로 이 실재를 현존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풍경화가라면 이 미학적 실재를 그림으로 구체화 할 것이며, 그가 음악가라면 ‘교향곡’이나 ‘실내악’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구체화된 작품은 모두는 아닐 지라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공감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이미 보편성(일반성)의 지평에 있다. 그래서 라벨은 미학적 가치는 ‘주관성의 깊어짐’에 따라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한 것이다. 작품 안에서 현실성(형상화)을 가지는 이 ‘미학적 실재’는 작품 안에서 관객의 마음을 건드리고 공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며, 감성적임과 동시에 지성적인 것이다.²⁸⁾

라벨은 이 미학적 실재를 “우리 자신의 너머에 존재하는 것(un au-delà de nous-même)과의 교감(sympathie)을 통해 표현되면서, 실재와 우리자신과의 친밀성(affinité)을 가지게 하는 것”²⁹⁾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물들에게 내면성(intériorité)을 부여하는 것”³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미학적 실재가 감성과 지성의 공동작업의 결과 혹은 감성과 이성이 분리되기 전의 인간실존의 총체적인 체험의 질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인상주의’도 ‘추상주의’도 모두 미학적 실재를 왜곡하는 것처럼 비판적인 시선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인상 주의에서 미학적 실재를 구성하는 것을 “순간성 안에서의 감각-감성(la sensation-émotion)”³¹⁾이라 보았고 이는 자발성과 순수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정신적인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추상주의(지성주의)에서는 관념(idée)을 통해 감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개념적 표현을 지향하면서 ‘감성적인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는 “추상은 미학적 감정의 죽음이다”³²⁾라고 말하면서 ‘개념을 통한 대상의 인위적인 재구성’을 경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술에 있어서 대상(objet)이란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sinification)를 품고 있는 수레’와 같은 것”³³⁾이라고

28) 이러한 미학적 실재를 키르케고르는 ‘이념(idée)’이라고 불렀고, 추상 화가이자 추상미술의 이론가인 칸딘스키는 이를 화가의 ‘내면성(intériorité)’이라고 불렀다.

29) *TDV* II, 296.

30) *TDV* II, 201.

31) *TDV* II, 304.

32) “l’abstraction est la mort de l’émotion esthétique.” *TDV* II, 296.

33) Louis Lavelle, *Les Puissances du Moi*, (Paris: Flammarion, 1948), 208.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미를 품고 있는 수레’라는 표현은 매우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혜를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란 용어는 ‘분석과 탐구’ 그리고 ‘유용성과 도구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을 유용성을 위해 분석할 때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구적 이성에서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주체’가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반면 ‘의미를 품고 있는 수레’라는 표현 안에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성을 전제하면서 사물들이 주체에게 무언가 인생의 진실이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학적 실재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기쁨’ 이상을 가져다주는데 그것은 곧 진실이나 진리에 대한 관조 혹은 정관(contemplation)이다.

예술은 우주에 무언가를 더하고 풍요롭게 하는 질료적 작품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원초적으로 행동이며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일(sortie de soi)’이다. 하지만 이 행동은 자신이 손짓하였던 실재성(현실성, *réalité*)에서 응답과 성취를 얻는다. 행동이 멈추거나 ‘관조(정관)할 수 있게 되면서(en devenant capable d’être contemplée)’ ‘자신의 최종 상태(son dernier état)’를 발견하는 것이다.³⁴⁾

가끔 사람들은 지극히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신을 찬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 속의 별과 달을 보면서 ‘태양의 찬가’라는 아름다운 시를 통해 신의 놀라운 섭리를 찬미하였다. 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신을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자연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의 미학적 시각이 ‘관조’를 통해 순수한 미학적 지평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학적 가치는 그 자체 영적인 가치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미학적 실재는 영적인 실재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⁵⁾

34) *Ibid.*, 219.

35) 미학이나 예술이 ‘영적인 것’을 숙고하는 계기가 되고, 정관이 미학적 실재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은 가톨릭철학자로서의 라벨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종교적 관점의 미학’ 혹은 ‘신학적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서 잘 다루고 있다. 이명곤, 「루이 라벨의 ‘존재론적 미학’ 혹은 ‘신학적인 미학’에 대한 전망」, 『지중해지역연구』, 19권, 3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017).

2.2. 창조적 행위에서 상상력, 가상, 허상 그리고 미학적 실재

주어진 실재를 체험하고 이 체험을 통해 내면에 ‘미학적 실재’를 가지게 된 작가는 이를 ‘작품’이라는 구체적 창조물을 통해 형상화한다. 이것이 곧 ‘예술행위’이며, 사람들은 창조된 작품을 ‘예술작품’이라 부른다. 그래서 라벨에게 있어서 예술행위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행위이며, 무엇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예술가의 내면에 존재하는 ‘미학적 실재’는 오직 그만이 가진 유일한 것이기에 산출된 작품은 ‘전혀 새로운 것’이며 그러기에 창조적인(독창적인)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산출된 작품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술행위가 창조적인 행위라는 차원에서 예술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는 개념은 ‘상상력(imagination)’ ‘가상(virtuel)’ 등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은 상상력, 가상, 허구, 허상 등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들이 미학적 가치나 미학적 실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는 것인지를 고찰하는 일이다.

알랭(Alain)이 쓴 불어판 ‘철학개념사전’을 보면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는 것(사람, 사물, 사건 등)을 생각만으로 떠올리면서 그것으로부터 실제로 어떤 영향(내적 움직임, 기쁨, 분노, 공포 등)을 받게 될 때, 이 생각하는 힘을 ‘상상력(imagination)’이라 규정하고 있다.³⁶⁾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공상(fiction)과 상상력의 차이를 ‘다 같이 생각만으로 떠올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내적인 움직임을 야기)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현실성의 차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의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몸이 돌로 변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메두사’를 떠올리면서도 전혀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생각만으로 떠올린 메두사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공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라벨은 상상력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어쩌면 훨씬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라벨은 상상력을 ‘단순히 생각만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불완전한

36) “실제로 사물이나 사람들이 현재 내 앞에 존재하지 않고서도 ‘오직 생각만으로(sur la seule pensée)’ 이들을 통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칼라스의 고문을 상상하면서 공포와 연민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전쟁, 폭동, 전염병을 상상하면서 마치 이미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믿게 된다. 이러한 상상력의 힘은 완전히 우리의 몸에 있으며, 우리가 행동을 개시하는 움직임들, 방어 또는 분노가 여기에 달려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악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안 역시 상상력에 달려 있다.” E. C. Alain, *Définitions*, (Paris: Gallimard, 1953), 121-122.

우리 자신과 불만족스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정신이 만족할 만한 미래의 어떤 ‘보다 가치 있는 가능성의 존재를 창조(고안)하는 능력’처럼 고려하고 있다. 아래 라벨의 진술은 이러한 상상력의 능력과 실재의 의미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가능성은 거의 항상 순전히 논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 일종의 ‘실재의 결핍(déficience de la réalité)’을 표현하지만, 주어진 그대로의 ‘실제적인 것(le réel)’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자마자 우리는 이 가능성에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상상력(magination)은 불완전한 실존으로부터 다양한 새로운 형식들을 산출한다. 말하자면 ‘존재의 애벌레’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 [가능성의] 형식들로부터 전혀 존재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결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성찰은 오직 이 모든 가능성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만 ‘가능한 것(le possible)’을 ‘실제적인 것(le réel)’으로 대체하고 다른 모든 가능한 것들을 실제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³⁷⁾

위 진술에 따르면 상상력이란 불완전하거나 무가치한 현실로부터 보다 완전하거나 보다 가치 있는 현실을 ‘창조’ 혹은 ‘고안’해내는 능력, 다시 말해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따라서 실제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유토피아와 동일한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면 그에게는 전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불만족하거나 현실에 대한 부정의 감정 등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그 자체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이 만든 사회 또한 매우 불완전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항상 상상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라벨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항상 미래의 가능한 존재와 관계되는 것이지 지나간 과거의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나 현재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래의 만족할 만한 삶의 형식을 고안해 내는 것이 곧 상상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력은 특히 창조적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기도 하다.³⁸⁾ 상상력이 고안한 다양한 새로운 형식들, 즉 새로운 가능성들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한 다양할 수

37) *TDV* 1, 349.

38) 상상력이 불완전한 현실을 보다 나은 것으로 바꾸는 첫 원동력처럼 고려하는 이러한 라벨의 관점은 프랑스의 과학철학자인 바슐라르의 관점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관점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지들이 실재를 완성한다(Les images achèvent la réalité)”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image)’란 상상력(l’imagination)의 결과물을 말하기 때문이다. Gaston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Paris: Librairie José Corti, 1948), 114.

있겠지만, 이 가능성들이 존재가 될 때, 즉 구체적인 현실이 될 때는 유일한 하나의 가능성만이 ‘실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라벨에게 있어서 만약 상상력이 고안한 다양한 가능성의 형식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도 ‘실재’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능성의 형식만이 실재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실재를 ‘의식의 실재’ 혹은 ‘정신적인 실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창조하고 이 중 가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정신적인 실재로 가지게 된다는 라벨의 사유는 “상상력도 자신의 변증법(ses dialectiques)을 가지고 있다”³⁹⁾는 가스통 바슐라르의 생각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변증법이란 ‘장-반-합’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보다 이상적인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실재는 한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보다 가치 있는 삶, 즉 새로운 삶을 보장하며 — 왜냐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노력만 한다면 실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주어진 현실로부터 초월할 수 있게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완성해간다는 의미, 즉 자아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벨은 시간을 ‘상상력의 환경(milieu qu’il imagine)’이라 부르고, 자아완성을 지향하는 삶을 ‘상상력의 삶(une vie d’imagination)인 주관적인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항상 현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유한한 존재(être fini)는 ‘자신이 상상하는 환경(milieu qu’il imagine)’을 의미하는 시간과 ‘상상력의 삶(une vie d’imagination)’인 주관적인 삶이 펼쳐지는 시간 덕분에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삶 없이는 그는 총체적인 존재(être total)를 이루는 몸체의 일부가 되어 버릴 것이고, 전혀 독립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⁴⁰⁾ 이와 같은 라벨은 사유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인간의 정신 심리적 이해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일이 익어간다는 것은 과일 속의 모든 영양소가 보다 증대하고 보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한 인간의 자아가 보다 완성된다는 것은, 즉 보다 궁극적인 목적에 다가간다는 것은 그가 지닌 보편적인 인간성과 개인적인 개별성이 모두 증대하고 보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완성된 과일은 더 이상 나무의 일부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의 삶을 시작하듯이, 자아가

39) Ibid.

40) Louis Lavelle, *De l'Être*, (Paris: Aubier, 1947), 256.

완성될수록 한 개인은 자신 속에 자신만의 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전체로부터 독립된 자신만의 삶의 형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라벨에게 있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능력이 곧 ‘상상력’인 것이다.

이제 ‘가상(le virtuel)’에 대한 라벨의 분석을 고찰해보자. 가상이라는 개념은 특히 현대 사회에 보다 빈번히 사용되고 보다 삶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들뢰즈나 보드리야르 같은 포스터 모던 이름의 사상가들은 가상의 개념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고 실재와 유사한 의미로 간주하는 사상가들이다. 특히 보드리야르는 현대의 디지털 기호와 정보로 산출된 ‘가상세계’를 마치 실재(현실)를 대신하는 ‘새로운 실재’처럼 고려하고 있다. 그는 “실재는 이제 극소화된 단위들이 데이터 뱅크에 저장되어 함수적 관계의 연산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실재는 무한정 재생산된다”⁴¹⁾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디지털리티는 세계의 형이상학적 원리이다”⁴²⁾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⁴³⁾ 그렇다면 라벨에게 있어서 가상은 어떻게 규정되고 가상이 지닌 의미나 역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라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상적인 것(l'idéal)이 항상 추상적(abstrait)이거나 가상적(virtuel)인 것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인 것의 가치는 ‘고유하게 [구체적인] 하나의 이상적인 것(un idéal)’은 아니다. 가치는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실현(mise en œuvre)이고 이상적인 것의

41) Jean Baudrillard, *Simulations*, trad. P. Poss, (New York, 1983), préface, X.

42) *Ibid.*, 103.

43) 가상을 실재나 현실과 구분시키지 않고, 또 다른 실재 혹은 현실의 연장처럼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철학적 사유들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주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성주의적 관점(constructivist perspective)’인데, 이는 가상이 인간의 지각이나 해석 혹은 구성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가상은 구성된 현실 또는 주관적 경험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두 번째 관점은 ‘연속체 관점(continuum perspective)’인데, 이 관점에서는 가상과 현실이 별개의 범주가 아니라 연속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가상과 실재는 상호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 둘의 구분은 정도나 강도의 문제가 된다. 세 번째 관점은 ‘시뮬레이션 가설(simulation hypothesis)’인데, 이는 Nick Bostrom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는 컴퓨터가 생성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보된 문명은 그 기초에 있어서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의 세계를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어쩌면 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에 의해 생성된 가상 세계일 것이라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루이 라벨은 이러한 사유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라벨의 관점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이론들을 차례로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지면상 본 논문에서는 가상과 실재에 대한 라벨의 사유를 조망하는 것으로 논의를 제한하고 있다.

구현(incarnation)이다.⁴⁴⁾

위 진술에서 ‘가상적인 것’은 상상력이 산출한 것으로 그 자체 ‘현실보다 나은 것’ 즉 일종의 ‘이상적인 것(l'idéal)’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생각이다. 왜냐 하면 불만족한 주어진 현실에 대해 보다 만족할 만한 것을 상상력을 통해 구상해낸 것(즉, 가상의 것)은 당연히 현실보다 나은 것, 즉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도공의 정신 안에 있는 ‘이상적인 청자의 형상’에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것’은 어떤 구체적인 작품의 형식으로 ‘실현(mise en œuvre)’되거나 혹은 삶의 형식으로 ‘구현(incarnation)’되기 이전에는 구체적인 ‘하나의 이상적인 것(un idéal)’은 아닌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적인 것(l'idéal)’은 아직 구체적인 몸체를 가지고 실현되었거나 혹은 실제적인 삶의 형식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잠정적인 미학적 실재’ 혹은 ‘잠정적인 정신적인 실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잠정적인 실재(la réalité virtuelle, 가상적인 실재)들은 한 개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주관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⁴⁵⁾ 라벨은 이를 ‘의식의 작품으로서의 실재’라고도 부르며 창조 작업에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이념적인 과정(étape idéologique)’이라 고려하고 있다.⁴⁶⁾ 그런데 잠정적인 것이 라는 그 정의 자체에 의해 구체적인 실재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이는 시간과 더불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반면 이 잠정적인 실재가 구체적인 작품이나 삶의 형식(행위)으로 실현되거나 구현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실재(la réalité actuelle)’가 된다. 그래서 라벨은 가치를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일치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적인 실재’로서의 ‘가상의 실재’가 마치 그 매개체나 원동력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44) *TDV* II, 274.

45) 한글 용어에서 ‘가상적인’이라는 용어와 ‘잠정적인’이라는 용어는 불어에서는 다 같이 ‘비르튀엘(virtuel)’이며, 라벨에게 있어서 이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뉘앙스의 차이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6) “‘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력(imagination du possible)’, 이는 우리들의 손의 작품이 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의식의 작품으로서의 실제적인 것(le réel en tant qu'elle est l'œuvre de notre conscience)’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이다. 이는 창조의 ‘이념적인 단계(étape idéologique)’이며, 이것이 우리들의 자유로운 행위의 한 사태가 되고, 그럼에도 ‘우주의 경제학(économie de l'univers)’ 안에 그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단계를 통과하고 넘어서야 한다.” *TDV* I, 351.

이상의 논의에 따라 상상력, 가상 그리고 실재 사이의 분명한 개념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첫째 상상력이란 ‘가치가 상실된 현재 혹은 현실(불만족한 현재 혹은 현실)’로부터 현실보다 나은 ‘이상적인 것’을 ‘정신적인 실재’ 혹은 ‘내적인 실재’의 양태로 산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반면 이 정신적이고 내적인 실재가 아직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작품으로 실현(réalisation)되지 않았거나 혹은 행위(행동)로 구현(incarnation)되지 않았을 때, 이를 ‘가상적인 실재(réalité virtuelle)’라고 불리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이 ‘정신적인 (내면의) 실재’로 고려될 때는 현실보다 나은 것(일종의 이상적인 것)이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는 ‘현실의 실재(réalité actuelle)’보다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낫거나 보다 못한 것의 기준은 ‘가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생각 속의 황금’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구리’보다 가치가 적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재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여기서 실재의 기준은 ‘가치의 개념’과 불과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실재의 첫 번째 속성은 어떤 식으로든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가치가 보다 내적이고 주관적인 것일수록 실재의 의미가 약화될 것이며, 구체적인 작품 실현을 통해 보다 보편적인 것이 될수록 실재의 의미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전혀 실재성을 가질 수가 없다. 라벨은 이렇게 전혀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 따라서 전혀 실재라는 용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을 ‘공상적인 것(le fictif, 혹은 허구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의 가능성이란 (현실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즉 현실적인 것(la réalité)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이 가능성이 현실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가치는 전혀 실재적이지 않고 ‘공상적인 것(le fictif)’이다.”⁴⁷⁾

앞에서 논의한 것에 비추어보면 ‘가능성이 전혀 현실적인 것이 되지 않을 때 공상적인 것이 된다’는 말은 ‘가상적인 실재’는 구체적인 작품이나 구체적 행위로 실현되지 않는 한,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말이다. 즉, ‘공상(fictif)’이란 어떤 종류의 실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재로부터 멀어지는 것 나아가 ‘순수한 공상(le fictif pur)’⁴⁸⁾이란 ‘실재를 무

47) *TDV* II, 274.

48) 여기서 ‘순수한 공상’이라는 이 공상이 가지는 의미가 전혀 실재 혹은 현실과 무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라벨은 “우리는 이 가능성이 ‘실제로부터(du réel)’ 우리에게 의해 창조되었으므로”(TDV I, 380)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無化)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가상'이 '현실'이 되지 못한다면 가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상 또는 허상이 되고 말 것이며, 현실에 가치를 증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가치를 박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에 두 대상에게 동일한 크기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상에 집착하는 그 만큼 현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벨에게 있어서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자면 '모순된 용어'이며 — 왜냐하면 가상성(la virtualité)이란 현실성(la réalité)에 대립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 다만 유비적인 의미로만, 즉 현실이 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실재 혹은 가능성으로서의 '내적인 혹은 정신적인 실재'의 의미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 '가상현실'이 전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현실성(réalité actuelle)'이 되지 못하는 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공상' 혹은 '허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현실이 가지는 가치관 오직 '현실적인 것이 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가치' 혹은 '보다 나은 현실이 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⁴⁹⁾

이처럼 라벨에게 있어서 '가치'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가치는 결코 '실재'나 '현실성'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가상도 (보다 나은 미래의) 실재가 되기 위해 거쳐 가야 할 단계라는 차원에서 특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상이 현실(실재)이 되지

49) 다른 한편 라벨은 가상과 실재의 구분을 물질적인(절료적인) 것 혹은 '존재의 총체성'의 차원에서 구분해 주고 있는데 이를 전쟁의 참사를 겪은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관해서는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경악할 만한 전쟁의 사건들의 예를 드는 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없다. 이 경우 각자는 화재의 불꽃과 이 불꽃이 남겨놓은 재 사이의 거리를 [수치로] 측정하겠지만, 어떠한 기억도 [이 화재를] 다시 되살려내는 데는 성공하지는 못한다." 루이 라벨, 『나르시스의 오류』, 이명곤 역, (하움출판사, 2022), 123.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실재의 '물질성' 혹은 존재의 '총체성'이다. 기억을 통해 떠올린 과거의 화재사건을 아무리 섬세하고 정교하게 (가상으로) 재현해 낸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실제로 그 화재를 다시 되살려 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뇌의 인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동일한 화재를 인지하고 실제로 동일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도 내 팔이나 다리가 불에 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가상현실은 물질성이 박탈되어 있고 또 존재의 총체성에서 무엇인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실재'와 '가상'을 구분하는 이러한 라벨의 관점은 정확히 베르그송의 관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마찬가지로 지각이 그려지거나 해석된다고 추정하는 것은 우리 신경계의 제 상태들이다. 그런데 신경계는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기관 없이, 기관이 숨 쉬는 공기 없이, 이 공기가 떠다니는 지구 없이, 이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 없이, 자신이 살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보다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된 한 물질적 대상이라는 허구(fiction, 가상)는 일종의 부조리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대상은 자신의 물리적인 속성들을 다른 모든 것들과 유지되는 관계들로부터 차용하고, 각 속성들의 규정이 다른 대상들에게 빚지고 있으며, 그 결과 우주 전체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 가상적 대상의 실존 자체가 다른 대상들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들이 단순히 '두 뇌 집단의 분자 운동들(mouvements moléculaires de la masse cérébrale)'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말자." Henri Bergson, *Matière et mémoire*, (Québec: Édition électronique, 2003), 14-15.

못하고 가상으로만 남아있는 한 오히려 실재나 현실의 가치를 박탈하는 ‘허구’가 되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라도 가상현실이 실제현실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라벨의 관점이다. 그래서 라벨은 예술의 부패가 “전혀 체험(경험) 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의도적인 심미적 탐색”⁵⁰⁾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현대예술은 고등사기이다!”라고 미디어 아트 작가인 백남준씨의 말에 대해 라벨은 ‘현대 예술이 점차 실재 혹은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진술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나가는 말

이상 우리는 현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루이 라벨의 『가치론』에서 실재의 개념 특히 미학적 실재의 개념과 가치와의 관계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대다수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루이 라벨 역시 ‘주어진 이 세계’, 우리의 감각에 포착되고 정신에 의해 그 본질이 파악되는 구체적인 세계를 실재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 실재에 대해 감탄하고 찬미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벨에게 있어서 사랑의 행위를 매개로 끊임없이 ‘선과 존재’를 발견하는 바로 이 실재에서 이기 때문이다.⁵¹⁾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다양하고 일종의 계층적인 위계를 가지고 있다. 순수하게 물질적 차원(물리적 실재), 감성적인 차원(감성적 실재) 그리고 미학적 차원(미학적 실재) 나아가 정신적(정신적 실재)이거나 영적인 차원(영적인 실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혹은 자연이 인간의 인식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성’ 그 자체이며, 라벨은 이러한 다양한 지평을 ‘가치의 나타남’처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실재가 있는 만큼 다양한 가치가 있으며, 가치 또한 계층적인 위계질서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벨에게 있어서 인간적 행위의 자연적인 원리는 끊임없이 하위적인 가치에서 상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상승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가치가 그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은 보다 상위적인 가치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산출하는 모든 가치들은 최상의 가치인 ‘영적인 가치’를 지향하

50) *TDV* I, 335.

51) “우리는 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비례하여 우리 스스로 ‘각 사물의 존재와 선(l'être et le bien de chaque chose)’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를 창조한 행위 자체가 ‘사랑의 행위(un acte d'amour)’이기 때문이다.” *TDV* I, 65.

면서 이 영적인 가치에서 그 참된 의미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물질적인 실재를 제외한다면 모든 실재는 인간의 가치 창출의 행위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일종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실재’이며, 이 내적인 실재가 예술 활동을 통한 ‘실현’ 혹은 정신활동을 통한 ‘구현’이라는 방식으로 현실 안에 ‘육화(*incarnatio*)’ 될 때에만 진정한 실재 참된 가치를 가진 ‘현실적인 실재’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실재를 창조한다는 것은 주어진 이 세계에 보다 큰 가치를 실현하고 방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적인 실재가 ‘구체적인 몸체’를 지닌 현실적인 실재로 육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신의 창조행위를 모방하거나 지속하거나 것보다 같은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순수하게 내적인 실재로서의 ‘가능성’을 라벨은 ‘가상(*virtuel*)’이라고(...) 일종의 ‘잠정적인 실재’ 혹은 ‘가능성의 실재’로서 (...) ‘이념적인 과정’처럼 고려된다.

오늘날 그 어느 때 보다는 ‘가상’이라는 의미가 인간적 현실에 깊숙이 스며들고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세계’ ‘가상현실’ ‘가상화폐’ 등으로 대변되는 이 같은 현대의 새로운 문화는 일견 인간이 창조한 새로운 실재이며, 또 ‘주어진 현실’과 다른 ‘또 다른 현실’로 간주될 만한 매혹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라벨은 가상에 대한 현대인의 이 같은 태도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순수성에 너무나 매료된 나머지, 정작 실현해야 할 현실의 삶과 자아의 형성은 잊어버리고 마침내 살아갈 의미를 상실한 ‘나르시스의 오류’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아무리 현실의 불꽃과 흡사하다고 해도 “가상세계의 불꽃이 나의 손이나 다리를 태우는 그 불꽃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말한 베르그송의 말처럼 라벨 역시 아무리 훌륭한 가상의 세계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현실과 흡사하다고 해도 ‘현실의 실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라벨에게 있어서 실재의 가장 첫 번째 징표는 ‘삶에 의미와 생기를 부여하는 가치’이며, 이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신성한 실재로 데려가는 상승적인 가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라벨의 이와 같은 사유를 마치 실재와 가상에 대한 유일한 판단의 척도처럼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다양한 다른 관점에서 비판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라벨의 사유가 오늘날 현대인의 사유에 일종의 경종을 울리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아마도 라벨의 사유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매료되고 있는 ‘가상의 실재’ ‘가상의 현실’ ‘가상의 세계’라는

이러한 실재들이 가지는 정확한 역할과 의미 그리고 그 참된 가치와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다시 말해 ‘잘못된 길을 뛰어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더 빨리 간다’고 했던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회문헌

김성현, 「‘최상의 허구’ 시론과 시물라시옹, 그리고 가상의 실재 —월리스 스티븐스, 장 보드리야르, 유발 하라리를 중심으로」, 『현대영미시연구』, 한국현대영미학회, 25(2), 2019.

루이 라벨, 『나르시스의 오류』, 이명곤 역, 하우출판사, 2022.

이명곤, 「루이 라벨의 참여이론과 사유의 역동주의」, 『인간연구』, No 26,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4.

_____, 「루이 라벨의 ‘존재론적 미학’ 혹은 ‘신학적인 미학’에 대한 전망」, 『지중해지역연구』, 19권, 3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017.

이성원, 「데이비드 살르의 시물라시옹 : 장 보드리야르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예술의 재현」,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최재정, 「J. 보드리야르의 ‘시물라시옹’ 이론이 주는 교육학적 시사점의 탐색」, 『교육철학』, 한국교육철학학회, 2006.

Alain E. C., *Définitions*, Paris, Gallimard, 1953.

Aquinatis Thomae, *Summa Theologica*, I, Marietti Editori, Italy, 1952.

Bachelard Gaston,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Paris, Librairie José Corti, 1948.

_____, *Essai sur la connaissance approchée*, Paris, J. Vrin, 1969.

Baudrillard Jean, *Simulations*, trad. P. Poss, New York, 1983.

Bergson Henri, *Le pensee et le Mouvant*, L'édition électronique, Québec, 2003.

_____, *Matière et mémoire*, Édition électronique, Québec, 2003,

Berkele George, *Les Principes de la connaissance humaine*, Trad. C. Renouvier, Paris, Armand Collin, 1920.

Lavelle Louis, *De l'Acte*, Paris, Montaigne, 1946.

_____, *De l'Être*, Paris, Aubier, 1947.

_____, *Les Puissances du Moi*, Paris, Flammarion, 1948.

_____, *Traité des valeurs*, I, Paris, PUF, 1991.

_____, *Traité des valeurs*, II, Paris, PUF, 1991.

McCann Edwin, “Locke’s philosophy of body”, *The Cambridge Companion to Locke*, 1997.

Russ Jacqueline, *Dictionnaire de Philosophie*, Paris, Bordas, 1991.

루이 라벨의 「가치론」에서 ‘미학적 실재’와 ‘가상의 문제’에 관한 고찰

이명곤

루이 라벨에게 가치란 주어진 실재(réalité)에 대해 인간 정신이 가지는 관계성 속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간 실존’이다. 라벨은 실존적인 사람이란 끊임없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물질적, 심미적, 도덕적, 정신적, 영적 가치들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면서 ‘무한히 상승하는 삶’을 가지는 사람으로 고려하고 있다. 라벨은 단순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을 ‘감성적 가치’라고 부르고 감성적 가치에 삶의 의미나 진실 등의 정신적인 것이 포함 될 때 이를 ‘미학적 가치’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미학적 가치는 예술가들의 예술행위에서 본질적인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미학적 실재는 ‘정신적인(영적인) 실재’를 목적으로 하며, 예술행위는 또한 정관(contemplation)을 지향하고 있다. 라벨에게 상상력(imagination)은 불완전하거나 무가치한 현실로부터 보다 완전하거나 보다 가치 있는 현실을 ‘창조’ 혹은 ‘고안’해내는 능력, 즉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의미하며, 상상력이 산출한 정신적인 혹은 내적인 실재를 ‘가상(virtuel)’이라 부른다. 따라서 가상이 가치가 있는 실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 안에서 ‘작품’으로 구현될 때이다. 전혀 작품으로 구현되지 못한 가상은 따라서 ‘공상적인 것(le fictif, 혹은 허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상이 현실(실재)이 되지 못하고 가상으로만 남아있는 한 오히려 실재나 현실의 가치를 박탈하는 ‘허구’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가상’의 의미는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현실이 실제현실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라벨의 관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라벨은 미학적 실재를 외면한 무분별한 심미적 탐색을 마치 예술의 타락처럼 고려하면서 현대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루이 라벨, 실재, 가치, 미학적 실재, 가상, 상상력

Considerations on ‘aesthetic reality’ and ‘the problem of virtuality’ in Louis Ravel’s *Theory of Value*

Lee, Myung-Gon

For Louis Lavelle, value arises from the relationship that the human mind has with a given reality (réalité), and what makes this possible is ‘human existence’. Lavelle considers an existential person as someone who constantly seeks to realize values and has an ‘infinitely rising life’ while pursuing material, aesthetic, moral, mental, and spiritual values step by step. Ravel calls what gives simple sensory pleasure ‘emotional value’, and when emotional value includes spiritual things such as the meaning or truth of life, he calls it ‘aesthetic value’. Therefore, aesthetic value becomes essential in artists’ artistic practices. Therefore, aesthetic reality aims at ‘mental (spiritual) reality,’ and artistic acts also aim at contemplation. For Ravel, imagination means the ability to ‘create’ or ‘invent’ a more complete or more valuable reality from an incomplete or worthless reality, that is, the ability to come up with various possibilities, and the mental or The inner reality is called ‘virtual’. Therefore, in order for the virtual to become a valuable reality, it must be realized as a ‘work’ in concrete life. A virtual reality that has not been realized as a work of art is therefore nothing more than a ‘fantasy thing (le fictif).’ As long as the virtual does not become reality and remains only virtual, it becomes a ‘fiction’ that deprives the real or the value of reality. Therefore, the meaning of ‘virtual’ is to become a medium for realizing something more valuable. Therefore, Ravel’s view is that virtual reality cannot and should not replace real reality. For this reason, Ravel maintains a critical stance toward modern

art, considering indiscriminate aesthetic exploration that ignores aesthetic reality as a corruption of art.

Key words: Louis Lavelle, Reality, Value, Aesthetic Reality, Virtuality, Imagination

논문 투고일	2024년 2월 26일
논문 수정일	2024년 4월 5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4년 4월 1일